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22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72.50원 (-15.5원)

KOSPI

7,007.72 (+113.49, +1.65%)

KOSDAQ

836.27 (+9.15, +1.11%)

국고채 10년 금리

4.457 (-0.00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바이백 경계 [박승진]

New K-ETF

현대차LG전자 피지컬AI, 한미대표주 채운 [박승진]

주간 하나채권

[9월 4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박준우, 허성우]

ETF Weekly Letter

인상 사이클의 초입 [장치영]

산업분석

통신 장비

삼성전자 위상 강화는 국내 무선장비업체에 대형 호재 [이상훈, 김홍식]

게임

도쿄게임쇼 2026: 한·일 게임사의 IP 전략과 신작 점검 [이준호]

Weekly

건설

순항하는 데이터센터, 지연된 대미투자 [김승준, 하민호]

글로벌리서치

자금광업

구리 가격 상승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송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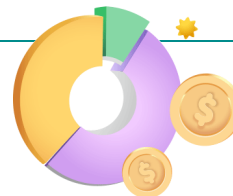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두산, DN오토모티브, 세아베스탈지주, 해성디에스, 올릭스, RFHIC, 티앤엘,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9.21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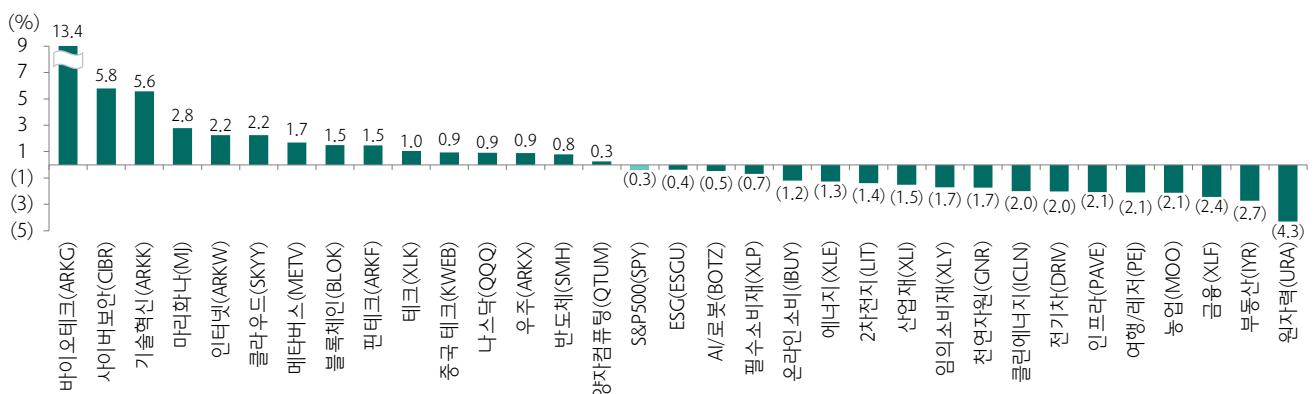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바이백 경계

경계심 소강 국면. 불확실성 남아있으나 트레이딩 대응 유효: VOO/QQQ, IYW/XLK, SMH/FTXL, DTCR/TRFK, DI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재개되었다. 분기말 일회성 수급 영향이 반영되면서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집계되면서 주식형 ETF 시장의 순유입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지역 중심의 자금 유입 추세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21.5억달러, 신흥아시아 채권형 ETF 시장에 +31.2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176.8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분기말 자금 이동의 영향과 금리 부담 완화에 따른 포지션 조정이 진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형 ETF 종목군에서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M/IVV의 두 종목에만 총 +175.0억달러가 유입된 가운데 SPMO(S&P500 모멘텀), VTI(US Total), VUG(성장주), VO(중형주), SMH(글로벌반도체), SCHX(소형주), SCHG(대형 성장주), SCHD(배당주) 등의 종목들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반면 SPY(S&P500), EWW(한국중시), IWR(중형주), XLP(필수소비재)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며 차별화된 수급 흐름이 나타났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VTEB/MUB(지방채), SGOV/BIL(초단기국채)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USHY(HY회사채), FLIA(국제채권), TLT(장기국채), VCSH(단기회사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대표적인 금 현물 ETF인 GLD와 IAU, IAU, GLDM으로 총 +15.4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종목군인 IBIT, FBTC, ARKB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순유출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지난주 FOMC와 BOJ 금정위를 마무리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심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금주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 변수와 러-우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상황 변화, 미중 정상회담, UN 총회 등 다양한 대외 정치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이다. AI 속도 조절론에 따른 논란 가운데 Meta의 개발자 컨퍼런스(9/23~24)도 예정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저커버그 CEO는 23일에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미래 AI와 속도조절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유효하나,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와 PCE 물가 전망에 대한 판단이 경계심이 컸던 시장에 당장의 안도감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 요인의 특성상 상황에 대한 판단의 난이도가 높아진 가운데 2027년 이후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이 견고한 가운데 PCE 물가의 2.0% 달성 예상 시기는 지난 6월의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조정되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들은 충분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보여졌으나, 물가안정 의지와 함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동반되며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금리선물에 반영된 시장의 정책금리 예상 경로는 2027년에만 1.8회 수준의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추가 인상 전망을 그려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지 않는 케빈 워시 의장의 성향은 오히려 당장의 변동성 빈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장의 고민은 다음주 확인될 PCE 지표와 고용보고서 등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인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20년~30년물) 바이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 BOJ 역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 반응도 제한되었다. 달러대비 153엔대 수준까지 하락했던 엔화 환율은 일본 당국의 레이트 체크에도 불구하고 약세 압력이 재개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이다.

-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휴전 연장,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펜타닐 원료물질 통제, AI와 첨단기술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커링 중국 부총리가 AI, 무역, 희토류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대규모 구조적 합의보다는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정상회담 기대를 반영하며 위안화가 3년 반 만의 강세 수준까지 올라선 부분도 일정 부분 미중 관계 안정화 의지와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특히 AI와 첨단기술 문제가 핵심 변수로 부각되는 가운데 NVIDIA의 젠슨 황 CEO도 시진핑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팀 쿡, 일론 머스크, 순다르 피차이 등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일정은 미중 기술관계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대중 AI 반도체 규제가 추가로 강화되지 않고 양국의 협상 채널이 유지된다는 신호가 확인된다면 NVIDIA와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에는 중국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낮추는 단기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관계 안정 기대가 이미 일부 반영된 만큼, 단순한 갈등 완화만으로는 강한 추가 재평가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부 낮아지는 정도의 반응에 대한 기대가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
- 반면 회담 결과가 단순한 갈등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신호로 해석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icron, TSMC 등 기존 기업들에는 점유율과 가격 경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단순한 미중 관계 개선 사실보다 미국의 대중 AI칩 판매 규제와 첨단 반도체 장비, 기술 통제에 대한 실질적 변화 여부가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ETF 포트폴리오는 변동성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선택지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잔존 리스크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특정 섹터에 집중된 형태보다 QQQ/VOO와 같은 대표 지수형 ETF나 YW/XLK/VGT 등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편, 액티브 운용을 통해 업종 선택과 비중 조절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CHAT/BAI(AI 액티브)도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금리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 ETF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도 유효하다. SMH/SOXX/CHPX처럼 대형주 중심의 포괄적인 반도체 포트폴리오나, XSD나 PSI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반도체주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구분이 필요하겠다. 불확실성 경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면 펀더멘털을 편입 기준에 포함하는 FTXL의 편입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범목의 영역에서 전력 관련 ETF인 POWR/GRID, 데이터센터 밸류체인 ETF들인 DTCR(리츠 비중)/TRFK(기술주 비중)의 선택이나, 변동성 국면을 고려하여 QUAL/SPHQ/QCRO 등 쉼리티 ETF를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DIVO/QDVO와 같이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방어력을 높이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지라는 판단이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2026년 9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New K-ETF

현대차LG전자 피지컬AI, 한미대표주 채혼

신규 상장 ETF(9/22): TIGER 현대차LG전자 고정 피지컬AI 밸류체인
IBK 한미대표기업TOP2+ 채권혼합50 액티브

TIGER 현대차LG전자 고정 피지컬AI 밸류체인: 현대차와 LG전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피지컬AI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국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피지컬AI 분야의 수혜 예상 기업들에 투자한다.

현대차와 LG전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보통주 가운데 기계, 전자부품, 대형 가정용 기기, 전동기·발전기, 자동차·부품, 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 등의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한다.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의 유동성 조건은 국내 기업의 경우 각각 3천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 미국 기업은 각각 10억달러 이상과 100만 달러 이상이 적용된다.

종목 선정에는 피지컬AI 밸류체인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키워드들을 활용한다. 세부 영역은 카메라·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물리적 인지 및 센싱’, 로봇 관제·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자율 제어 및 시스템 지능’, 감속기·액추에이터·모터 등을 통해 실제 움직임을 구현하는 ‘정밀 구동 및 모션 제어’로 구분한다.

현대차와 LG전자는 핵심 종목으로 각각 25%의 비중으로 편입한다. 나머지는 키워드 유사도 점수가 0.5점 이상인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정규화 점수와 유사도 점수를 함께 반영한 종합점수 순으로 최대 13개 종목을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상장일 기준(9/22) 포트폴리오에는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AUTOLIV, LG이노텍,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GENTEX, LG씨엔에스, 두산로보틱스, 한온시스템, 로보티즈, 에스엘, 현대무비스, 에스피지가 편입된다. 현대차와 LG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한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2월/5월/8월/11월)에 걸쳐 진행된다. 총 보수는 0.50%이다.

IBK 한미대표기업TOP2+ 채권혼합50 액티브: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와 통안채 구성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5:5의 비중으로 조합하여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액티브 ETF이다. 채권혼합형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의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100% 비중까지 투자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인 ‘FnGuide TOP2 한미대표기업 채권혼합지수’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각각 25%의 비중으로 편입한다. 통안채의 경우 잔존만기 1년 이하의 종목들을 편입하여, 금리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형태로 구성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증시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이다. 액티브 ETF인 만큼, 편입 비중 조절 또는 일부 종목의 추가 편입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0.3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도표 1. TIGER 현대차LG전자고정피지컬시 밸류체인, IBK 한미대표기업TOP2+채권혼합50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현대차LG전자고정피지컬시밸류체인	IBK 한미대표기업TOP2+채권혼합50액티브
상장일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KEDI 현대차LG전자고정피지컬시밸류체인지수	FnGuide 한미대표기업TOP2채권혼합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50%	0.30%
구성종목 수	15종목	12종목 (한국·미국주식 각 1종목, 통안채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1, 2위 : 25% - 기타 : 시가총액배분방식	- 주식 : 25% - 채권 : 각 5%
정기변경	연 4회 (매 2, 5, 8, 11월)	- 주식 : 연 4회(3, 6, 9, 12월) - 채권 : 월 1회

자료: KRX,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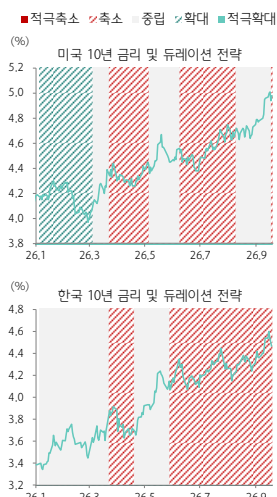
2026년 9월 21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한국			

주: 9/17 기준. ●는 직전(8/10) 전망



주간 하나채권

[9월 4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 지난주 금리 하락은 긴축 불확실성 완화보다 유가 안정에 기인
- 첫 인상 '시점'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견조한 성장에 최종금리 '레벨' 불확실성은 확대
- 미 10년 금리 적정 수준은 4.9%대. 다만 인상 사이클 초반의 위험 프리미엄 확대에 유의

Weekly Viewpoint

지난주 9월 FOMC 이벤트를 거친 후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금리 하락의 원인은 긴축 불확실성 완화보다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 8월 초부터 유가 반등이 금리 상승을 자극했는데, WTI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을 하회하면서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도표 1]. 금주 미중 정상회담에도 중등 리스크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유가 하락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가 하락만을 근거로 금리 하락 추세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긴축 불확실성 완화가 금리 하락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1)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전히 낮다. 9월 FOMC 불확실성이 컸던 것과 달리 미국의 주가와 국채 내재 변동성 지수는 매우 낮다 [도표 2]. 만약 자산가격 변동 리스크가 커진 상태라면, 불확실성 완화가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경로를 통해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MOVE 지수는 최근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했다. 그간 금리가 성장과 물가 전망을 착실하게 반영하며 상승했다면, 이제는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까지 겹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 성장세도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고용이 및 고금리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 노동시장과 가계소비도 양호하다. 미국의 주간 ADP 고용은 최근 1개월 반등해 월간 6~7만명 수준의 고용 추세를 시사하고 있으며 [도표 16],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9/12 기준 19.6만 명으로 20만명을 하회했다. 고용(근로소득)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편 순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6% 증가했고, 주간 Redbook 소매판매도 연 8%대 증가세다 [도표 5]. 그 결과 미국 성장률은 2%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6]

(3)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지 않다. 금리 상승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돼야 하며, 유력한 트리거는 통화정책(혹은 금융환경) 긴축이다. 하나채권은 통화정책이 이제야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고 판단하므로 [도표 4], 긴축의 효과가 확인되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 케빈 워시조차도 9월 FOMC에서 금융환경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회성 인상이 아닌 인상 '사이클'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즉, 첫 인상 '시점'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채권은 미국 최종 기준금리 4.50%로 전망하며(12월, 3월 인상), 10년 금리의 적정 레벨을 4.9~5.0%로 보고 있으나 미국 국채에 대해 ‘축소’ 의견(9월 17일 제시)을 유지한다. 향후 인상 사이클을 상당히 반영한 상태이고 첫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으나, 또다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내재 변동성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왔으나, 인상 사이클 초반부에는 변동성 확대(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가 예상된다. 이 경우 금리는 적정 레벨에 머무르기보다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도표 1. 한미 10년 금리와 WTI 변화

지난주 금리 하락은 간혹 불확실성 해소보다 유가 급등세 진정이 직접적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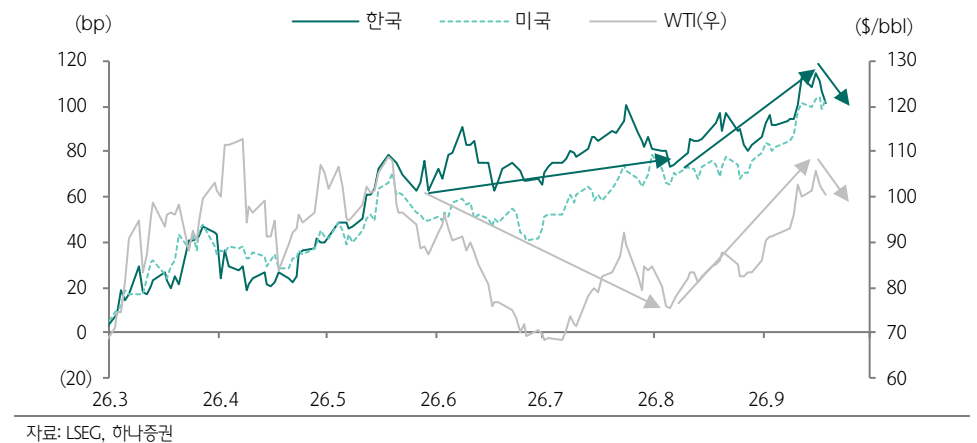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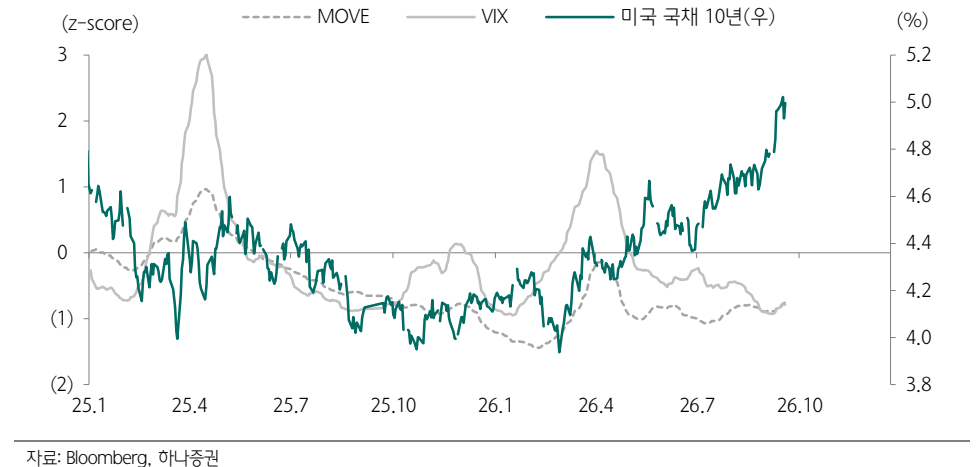


도표 2. 미국 주식/채권 내재 변동성과 국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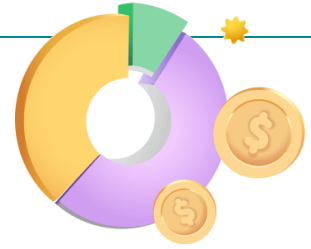
채권시장은 그간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펀더멘털 반영해 금리 상승

이제 MOVE 지수 반등하면 금리 상방 리스크 자극할 위험



ETF Weekly Letter

HANA Global Weekly | 2026.9.21



Global ETF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인상 사이클의 초입

높아진 금리, 더 까다로워진 선택

- **인상 사이클의 초입** 지난주 미 증시는 유가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 9월 FOMC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었으며, 점도표 상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유틸리티, 부동산 등 금리 민감 섹터가 부진하였으며 단기를 중심 상승세에 금융 섹터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 다만, 주 후반 유가가 안정을 찾으며 시장 금리 상승세가 진정됨에 따라 주요 지수는 낙폭을 일부 회복. 특히 AI 개발 속도 조절론으로 인한 우려로 주 초반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는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일부 해소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 이에 주요 지수 대비 IT(XLK +1.0%)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
- 테마별로는 사이버보안(CIBR +5.8%)과 소프트웨어(IGV +2.8%)의 반등이 두드러졌으며, AI(BAI +1.4%), 반도체(SMH +0.8%), 빅테크(MAGS +0.8%) 등 기술주 관련 테마도 양호한 흐름. 반면 은행(KBWB -4.9%), 금속·광산(XME -4.4%), 우라늄(URA -4.3%) 등 금리 및 원자재 관련 테마는 약세.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도 석유·가스 생산기업(XOP -2.6%)은 하락하며 원유 가격과 에너지 주식 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
- **선별적인 매수세** 지난주 미국 ETF 시장에서는 주식형으로 약 718억 달러가 유입되며 2주 연속 순유입이 지속.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형으로 약 138억 달러가 유입되며 매수세가 이어짐. 올해 미국 ETF 시장의 누적 자금 유입은 9월 중순 이미 1.5조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유입액을 상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위치
- 테마별로는 반도체로 2주 연속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빅테크 등 일부 기술주 테마로 매수세 유입. 반면 AI·로보틱스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기술주 내에서도 차별화. 반도체의 주간 유입 강도는 3.01%로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방산은 3주 만에 유입세로 전환된 반면 금광과 구리광산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 한편, 석유·가스 테마는 주가 조정에도 5주 연속 자금이 유입
- 개별 ETF에서는 퀄리티 성격의 ETF로 높은 강도의 자금 유입이 관찰. 미국 주식형 ETF 주간 자금 유입 강도 상위 10개 중 FCF 관련 ETF가 3개 포함되는 등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시장 선호 확인.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머니마켓 및 단기금리형 ETF가 자금 유입 상위권에 위치하며 관망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

미국 주식형 ETF 자금 유입 강도 상위 TOP 10: 현금 흐름 양호 기업에 대한 시장 관심 확대

(단위: 백만 달러)

티커	ETF	투자 대상	AUM	주간 유입 강도 (%)	주간 유입액
SPMO	Invesco S&P 500 Momentum	S&P500 모멘텀	28,908	28.13	6,384
VFLO	VictoryShares Free Cash Flow	미국 배당·FCF 우수기업	13,874	25.52	2,837
MOAT	VanEck Morningstar Wide Moat	미국 경제적 해자	14,507	24.41	2,852
BKGI	BNY Mellon Global Infrastructure Income	글로벌 인프라 배당주	1,879	18.46	297
SCHM	Schwab U.S. Mid-Cap	미국 중형주	17,339	18.23	2,686
XHB	State Street SPDR S&P Homebuilders	미국 주택건설	1,466	18.08	224
FTXL	First Trust Nasdaq Semiconductor	나스닥 반도체	1,465	17.81	221
COWZ	Pacer US Cash Cows 100	미국 FCF 우수 기업	23,023	17.76	3,483
ARKK	ARK Innovation	혁신 성장주	7,856	17.38	1,115
CALF	Pacer US Small Cap Cash Cows	미국 FCF 우수 소형주	4,465	16.76	639

주1: AUM 10억 달러 이상

주2: 26.09.18 기준

자료: FactSet, 하나증권

2026년 09월 2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21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9,290원

알에프에이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59,7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31,7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9,1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21,20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9,90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49,1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7,25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55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3,06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37,600원

통신 장비

삼성전자 위상 강화는 국내 무선장비업체에 대형 호재

이동전화 세대 거칠수록 글로벌 SI 업체 수 감소, 5G SA/6G 때도 SI 감소할 것

3G/LTE/5G를 거치면서 글로벌 SI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알카텔과 루슨트의 합병으로 알카텔-루슨트가 탄생한데 이어 알카텔-루슨트가 노키아에 인수된 사례가 대표적이고, 무선-유선간 M&A 사례로는 앤드류가 콤스코프에 인수된 사례가 있겠다. 통신장비는 투자 사이클이 길어서 비수기 현금 확보가 어렵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통신사 장비성능시험에 응해야 해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강제되는데 비해, 망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신규 업체 진입은 쉽지 않다. 결국 레퍼런스가 있고 수익성 확보한 대형 SI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본질적인 산업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글로벌 SI 재편 양상은 향후 5G SA/6G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SI간 M&A의 본질적 원인은 현금부족, 중국엔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SI간 M&A가 시대를 거듭하며 반복될 경우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유리할 수 있겠다 판단이다. 과거 SI간 M&A가 추진된 경우 상위 SI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던 만큼 단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불리해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글로벌 SI간 M&A 추진의 원론적 이유는 5~7년에 달하는 긴 비수기로 인한 현금 부족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매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노키아, 이동전화 세대 변화에 따라 매출 등락이 심한 에릭슨에 비해 여러 사업부 구성을 갖춰 10년간 매출 우상향 중인 NEC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비중국계 글로벌 SI 중 가장 생존 여력이 큰 업체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라 볼 수 있다. 타 SI와 달리 반도체와 무선/가전 사업부 덕분에 전자 체력이 우수해서 네트워크 사업부의 비수기 손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철수하기엔 주파수 세대 진화 시점마다 돌아오는 대규모 장비 수주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일 뿐 더러, 사업적으로도 통신장비 기술이 모바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과거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통신장비와 모바일 사업을 겸했던 사례를 복기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가만히 버티면서 경쟁 SI가 고사하길 기다리면 자연스레 M/S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삼성전자 M/S 확대시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에 막대한 호재 예상

삼성전자 M/S가 확대되면 삼성전자에 장비/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아웃소싱 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아웃소싱 업체들의 고객사가 감소한다면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할 순 있겠다. 하지만 국내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고 타 글로벌 SI 향 매출은 비교적 최근 생겼던 점에서 삼성전자 위주로의 SI 숫자 감소는 이득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화웨이와 글로벌 M/S를 확장하게 되자 콤바, 대북과기, 우한팡구 등 중국 장비/부품 업체의 매출이 급증한 사례를 보면 그렇다. 자국 SI의 약진은 같은 역내 아웃소싱 업체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될 수 밖에 없음이 이미 입증된 셈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장비업체 매출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무선장비 주도주인 RFHIC/KMW/썬리드/LIG아큐버 장기 매수도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Analyst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2026년 9월 22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21일

NC (036570)

BUY | TP 420,000원 | CP 206,500원

넷마블 (251270)

BUY | TP 50,000원 | CP 34,550원

게임

도쿄게임쇼 2026: 한·일 게임사의 IP 전략과 신작 점검

30주년을 맞은 도쿄게임쇼. 한국 게임사들의 신작 공개, 중국의 B2C 축소

도쿄게임쇼 2026은 9월 17일 개막했으며 20일까지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렸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 기간을 5일로 확대했으나 기상 문제로 4일간 진행되었다. 참가 기업은 1,138개, 참가 국가·지역은 53개, 전시 부스는 3,999개다. 중국 대표 게임사들은 8월 게임스컴과 상반되게 이번 도쿄게임쇼에 B2C 부스를 출품하지 않았다. 중국 게임사들의 부재로 대형 서브컬처, 신규 IP 라인업을 시연하는 부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일본, 국내 게임사가 신작 라인업들로 빈자리를 채웠다. 국내 게임사는 2025년 대비 2.5배 늘어난 127개사가 참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게임사들은 일본을 핵심 신작의 첫 공개 및 시연 무대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넥슨은 [파레이돌리아], [마비노기 모바일], NC는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넷마블은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펄 인 블루]를 선보였다. 스마일게이트와 NHN도 일본 이용자를 겨냥한 라인업을 배치했다. 개발 단계부터 현지 이용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팬덤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일본은 IP 활용 다변화, 한국은 새로운 팬덤 확보에 도전

일본 대형 게임사들의 IP 확장 전략은 이어지고 있다. 캡콤은 대형 확장 콘텐츠, 스퀘어에닉스와 아틀러스는 대표 IP의 후속 작품과 리메이크를 전면에 배치했다. 세가의 [STRANGER THAN HEAVEN]처럼 새로운 작품도 함께 등장했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IP를 확장한 케이스다. 국내 게임사들은 일본 원작 IP와 자체 캐릭터 IP를 병행하며 현지 시장에 접근한다. 이번 도쿄게임쇼에 중국 대형 게임사가 B2C 전시를 축소했기에 국내 서브컬처 신작이 주목받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캡콤 부스 맞은편에 위치했던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와 [파레이돌리아]는 시연까지 120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다만 전시장에서의 노출 확대가 정식 서비스 시장의 경쟁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관심을 테스트 참여와 출시 후 이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TAM 확대: 스위치2 포팅과 GTA 6가 넓히는 콘솔 시장

시장 전반의 둔화 속에 플랫폼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25년 닌텐도 스위치2 출시로 고사양 서드파티 게임의 새로운 공급 경로가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닌텐도 스위치2의 보급 확대는 PC·콘솔 게임의 판매 플랫폼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스위치2의 누적 판매량은 2026년 6월 말 2,368만대다. 올해 11월 19일 글로벌 최대 기대작 [GTA 6]은 PS5와 Xbox Series X|S에서 출시 예정이다. PS4가 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PC판 출시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형 콘솔 이용자의 기기 교체와 출시 시점에 플레이하려는 PC 이용자의 콘솔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한다. PS5는 2026년 6월 말 누적 약 9,530만대로, PS4의 누적 판매 규모와 아직까지 약 2,200만 대의 차이를 보인다. 최근 하드웨어가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격 인상으로 수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GTA 6]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기폭제가 될 수 있는 IP다. 산업적으로 스위치2 포팅은 기존, 신규 IP의 이용자 점점 확대, [GTA 6]는 현세대 콘솔의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두 변화는 국내 PC·콘솔 게임사의 잠재 판매 기반 확대에 긍정적이다. 다만 여러 기기를 보유한 이용자가 존재하므로 하드웨어 판매량을 단순 합산해 신규 이용자 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또한 [GTA 6] 출시 직후에는 이용자의 시간과 지출이 집중될 수 있고, 출시 전 후로 텀을 두고 경쟁작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이 유의미한 신작들을 출시하는 시점은 2027년 이후이기에 확대된 보급 기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미 성과를 거둔 IP의 차기작인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 네오위즈의 [P의 거짓 후속작]의 출시 시점 수혜를 기대한다.

NC: 결국 아이온2 글로벌이 중요 / 넷마블: 신작 출시 일정 구체화 필요

NC는 게임스컴, 도쿄게임쇼를 통해 [신더시티], [라이크 오어 다이],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와 같은 신작을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알렸다. 글로벌을 타겟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온2 글로벌]의 흥행이다. 만약 [아이온2 글로벌] 출시 직후 셀은 수급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판단한다. 넷마블은 상반기 출시한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DIVE]의 아쉬운 성과로 역대 최저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신작 출시 일정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이지스]가 아직 베일 속에 있기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추정치 반영 및 주가 반등을 전망한다.

순항하는 데이터센터, 지연된 대미투자

건설 Weekly | 2026.9.22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4.6%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 매수, 연기금과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도, 삼성E&A와 DL이앤씨, GS건설을 매수했다. 외인은 전체적으로 매도했다. 대미투자발표 연기, 미국 금리 인상 등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삼성E&A는 중소형LNG 모듈 기술 발표, 카자흐스탄 MOU 등의 소식에 상승했으며, DL이앤씨는 이어지는 기타법인 매수세에 당진 데이터센터 착공 소식에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6으로 2주 연속 같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5주 연속 상승(+0.08%), 전세가는 66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81주 연속 상승(+0.15%), 전세가는 82주 연속 상승했다(+0.16%). 서울 매매가는 86주 연속 상승(+0.16%), 전세가는 83주 연속 상승(+0.18%)했다. 지방광역시는 상승(+0.01%),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9주 연속, 기타지방 55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전남광주(+0.06%), 울산(+0.05%), 대전(+0.03%), 인천(+0.02%), 대구(+0.01%) 상승, 부산(-0.02%)이 하락했다.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과 GS의 출자 공시가 있었다. 현대건설은 포항시데이터센터를 수주했다. 용량 공사기간은 16.5개월, 40MW에 계약금액은 4,266억원로 MW당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수주 금액이 MW당 100억원 이상인 것과 공사 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것이 확인된 수주 사례다. GS는 동해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GSA인프라에 2천억원 출자를 결정하는 공시를 냈다. 1차적으로 2028년까지 동해시 총 1.2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 투자금액이 약 15조원, 그 중 2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동해시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통과한 상태다. 11월 약 100MW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 대미투자발표가 연기됐다. 본래 17일로 예정되었던 대미투자의 국회 보고를 22일로 옮기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미간 상업적 합리성, 한국형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 비율 등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는 텍사스 발전소 투자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223억달러 투자하여 20년간 432.9억달러~454.3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미확보와 외부전력 수요처 부재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어,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될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및 멕시코 순방(21~27일)할 예정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씨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LH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내년부터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 비중이 높은 중소형건설사(계룡건설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전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주가 명확히 나타나는 시점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건은 중동 분쟁 종료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

2026년 9월 21일 | Global Equity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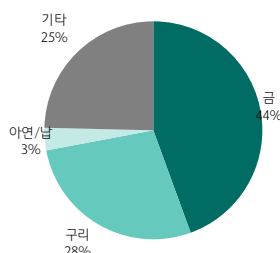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7.88 CNY
CP(9.18) 31.41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상하이 거래소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비철금속
홈페이지	www.zjky.cn
시가총액(십억CNY)	835.2
시가총액(조원)	172.6
52주최고/최저(CNY)	43.5/24.4
주요주주 지분율(%)	

Minxi Xinghang State-owned Assets	22.88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22.4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3.2) (25.2) 5.0
상대	(18.2) (22.0) 4.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3,640	349,079	464,526	514,494
영업이익	47,192	78,446	126,853	145,240
순이익	32,051	51,777	81,097	92,851
EPS(CNY)	1.2	1.9	3.1	3.5
EPS(YoY, %)	48.2	59.1	57.4	13.8
ROE(%)	24.7	31.2	35.5	30.6
PER(배)	12.6	18.1	10.4	9.3
PBR(배)	2.9	5.11	3.31	2.62
배당률(%)	1.6	1.9	-	-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자금광업(601899.CH)

구리 가격 상승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중국 최대 종합 광산 기업, 리튬 생산도 확대

자금광업은 구리, 금, 아연, 리튬 등 금속 광물자원의 개발 및 제련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광산 기업이다. 중국을 비롯해 해외 17개국에서 주요 광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이 A주와 홍콩 H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다. 2025년 기준 금·구리·아연 3대 핵심 금속 생산량은 중국 1위, 글로벌 5위권을 기록했다. 자금광업은 최근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 리튬 생산을 본격화했으며, 생산량 가이던스로 2026년 12만톤, 2028년 32만톤을 제시했다. 향후 아르헨티나 3Q염호, 티베트 라귀취 염호 및 후난 상위안 리튬광산 1기의 생산능력 확대와 2기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콩고 마노노 리튬광산도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리튬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구리 가격 강세와 생산능력 확대에 주목

금·구리 가격 강세와 주요 광산의 증산이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1H26 자금광업의 광산 금 생산량은 46.7톤으로 YoY +13% 증가했다. 구리 생산량은 53.4만톤으로 YoY -5% 감소했으며, 콩고 Kamoanga 광산 영향을 제외하면 YoY +5% 증가했다. 금·구리 판매가격은 각각 YoY +45%, +37%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금·구리 마진율은 각각 66.4%/70.4%로 YoY +12%p/+5.3%p 개선됐으며, 2Q26 전사 마진율도 39.2%로 YoY +14.7%p 상승했다. 자금광업은 광산 금 생산량을 2025년 90톤에서 2028년 140톤, 광산 구리 생산량을 109만톤에서 16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각각 2025년 대비 약 56%, 47% 증가하는 수준이다. Kamoanga 광산의 올해 구리 생산량 가이던스는 기존 42만톤에서 33만톤으로 하향 조정된 점은 우려 요인이거나, 티베트 Julong 광산의 Capex 확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대비 조정 받은 주가, 실적 개선에 주목

공급 차질 우려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기동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광업은 금·구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리튬을 비롯한 신규 광종의 생산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금광업의 2026/27년 매출은 각각 YoY +33%/+11%, 순이익은 +57%/+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이익률 역시 2025년 14.8%에서 2026년 17.5%, 2027년 18.0%로 개선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약 28% 조정되며 현재 12MF P/E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견조한 이익 성장 전망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만큼, 금·구리 가격 강세와 주요 광산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21	1,857,000	1,868,000	0.59%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단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40,700	3.00%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두산 (000150.KS)	9/21	1,447,000	1,432,000	-1.04%	-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부가 CCL 수요 급증으로 전자BG 실적 고성장 전망 - 대규모 국내·중국 생산능력 증설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기대
DN오tom티브 (007340.KS)	9/21	49,300	49,200	-0.20%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합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9/21	45,050	43,800	-2.77%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해성디에스 (195870.KS)	9/21	57,500	56,300	-2.09%	- 로봇·산업용 반도체 확대로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의 판가 및 출하량 개선 기대 - 창원 생산능력 증설을 기반으로 리드프레임·패키지기판 공급 확대 가능
올릭스 (226950.KQ)	9/21	111,600	106,100	-4.93%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RFHIC (218410.KQ)	9/21	60,100	59,700	-0.67%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티앤엘 (340570.KQ)	9/21	27,300	28,250	3.48%	- 주력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의 판매 회복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상반기 수익성 개선 - 핵심 고객사 Church & Dwight의 트러블케어 패치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
더블유씨피 (393890.KQ)	9/21	10,290	10,180	-1.07%	- 전기차용 분리막 수요 회복과 함께 ESS용 분리막 출하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기대 - 북미·국내 ESS향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사 다변화를 기반으로 실적 회복 진행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57%	-2.22%p	+76.81%	+12.5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40,700	3.00%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증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GS건설 (006360.KS)	9/14	38,500	36,600	-4.94%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70,000	8.28%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868,000	13.42%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5,000	1.48%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67,000	-2.7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 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3,000	16.1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790	-4.14%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29,000	25.13%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8,000	9.55%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7,500	-3.74%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76,000	14.03%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82%	-2.41%p	+41.41%	-22.9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중국 9월 기준금리 (3.0%, 이전치 3.0%)		유로존 9월 소비자가대지수 (E -16.0, 이전치 -15.5)	-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4.5) - 독일 9월 제조업 PMI (E 54.0, 이전치 54.3) - 독일 9월 서비스업 PMI (E 50.0, 이전치 49.7)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52.6, 이전치 52.7) -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51.4, 이전치 51.6) - 미국 9월 제조업 PMI (E 53.6, 이전치 53.9) - 미국 9월 서비스업 PMI (E 55.9, 이전치 56.5)	-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9)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5) - 독일 9월 IFO 기업환경 (E 89.0, 이전치 88.8) - 독일 9월 IFO 예상 (E 89.3, 이전치 89.1)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1.4%, 이전치 -10.5%)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0.3%, 이전치 1.1%)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47.5, 이전치 47.8)	
9.27	9.28	9.29	9.30	10.1	10.2	10.3
	- 일본 8월 PPI (E --, 이전치 3.6%) - 중국 8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1.2%)	- 유로존 9월 소비자가대지수 (E --, 이전치 --) - 미국 9월 컴퍼런스보드 소비자가대지수 (E 91.0, 이전치 89.4)	- 한국 8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3.6%) - 일본 8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2.1%) - 일본 8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3.9%) - 중국 9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5) - 중국 9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4) - 미국 9월 ADP 취업자 변동 (E 58k, 이전치 38k) - 미국 8월 PCE (E 3.7%, 이전치 3.7%)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E 25, 이전치 22)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서비스업 지수 (E 36, 이전치 37) - 한국 9월 수출 (E --, 이전치 68.7%) - 한국 9월 수입 (E --, 이전치 22.5%) - 미국 9월 제조업지수 (E 55.0, 이전치 54.6)	- 한국 9월 CPI (E --, 이전치 3.1%) - 일본 9월 실업률 (E --, 이전치 2.4%) - 유로존 9월 CPI (E --, 이전치 3.2%) - 미국 9월 실업률 (E 4.2%,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